

## 기꺼이 써야 할 반성문

어느덧 해가 바뀌었으니 지난해의 일이라고 해야겠다.

내가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은 3층 건물의 3층인데 2층엔 구둣방이 있다. 여름만 되면 이놈의 구둣방에서 올라오는 시너냄새가 말도 못하다. 창문이라도 훔훔 열어놓고 살면 그나마 좀 나을 성도 싶는데 시너냄새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우리 집 창문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그래서 늘 비닐로 막아져 있다. 천장으로는 지랄 같은 태양이 곧장 내리쬐고, 창문은 꼭꼭 닫아걸고, 창문 위예다가는 바람 한 점 통할 수 없게 비닐까지 덧댄 채 그 안에 들어앉아 하루를 보내야하니, 짜증 안 내고 배겨낼 재간이란 없었다.

“이 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이 놈의 집 쪽으로는 오줌도 안 갈긴다!”

하고, 침이나 한 번 뒹, 뺨고 떠날 수 있는 재력이라도 있다면 짜증도 그나마 좀 덜했으련만, 이건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래층에 구둣방이 있다는 것과 주방과 욕실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 겨울이 되면 한 데서 씻고 밥 해먹어야 된다는 취약점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가장 싼 집이다. 여름이면 비닐을 덧대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창문예대 대고 “으이구 덩다, 으이구 더워!” 투덜거리고, 겨울이면 양말 위에 또 덧버선을 끼신고 주방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 “겁나게도 춥네, 추워!” 궁시렁 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벌써 6년을 살고 있는 이유도 다 그놈의 웬수같은 돈 때문이다.

그 일이 있던 날도, 나는 여느 여름처럼 계속

되는 불벌더위에 짜증이 나있을 대로 나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성을 잃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이건 다 핑계다).

그 날은 무슨 변덕이 붙어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딸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고 싶었다. 아들은 어린이집엘 보내고 딸은 보내지 않았다. 남편도 없고 아들마저 없으니 집안엔 여자 둘뿐이었다. 우리 네 식구 모두 가족이지만 그래도 여자는 너와 나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날따라 유독 딸아이가 귀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날도 분명히 써야할 원고가 있었지만 원고는 뒷전으로 미루고 딸아이만 붙들고 앉아 하루를 몽땅 다 보냈다. 가르마를 가운데로 타서 뒹었다가 다시 푸르고, 머리를 전부 이마 뒤로 빗어 넘겨 편을 쫓아도 보고, 싫다고 도리질을 해대는 딸아이를 괴롭히면서까지 그렇게 인형놀이도 한번 원 없이 해봤다. 제 손으로 먹겠다는 걸 손등을 때려 울려가면서까지 밥을 떠 먹여 준 뒤에는 안 자겠다는 걸 억지로 눕히고 “자장자장 우리아가 자장자장 우리아가.....” 딸애가 원치도 않는 자장가까지 불러줬다. 나는 잠든 딸애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정말로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딸애는 불에 살이 좀 많은 편이다. 평소에도 나는 내 딸애의 그 푹, 불거져 나온 뺨을 그렇게도 귀여워할 수가 없는데 그 귀여운 불에 이상한 자국이 나 있었다. 이게 뭔가? 나는 깜짝 놀라 딸애의 불에 난 자국에 눈을 가까이 가져갔다. 크기는 오백원짜리 동전만 했고, 스카치테이프를 붙

였다 뎨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섰다. 아마도 누군가 그 때, 그 순간의 나의 얼굴을 봤다면 너무 흥취하고 무서워서 당장에 도망갔을 지도 모른다. 그 때 내 눈에는 뵈는 게 없었다. 나는 지는 애를 들쳐 업고 무서운 속도로 어린이집을 향해 달려갔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분명히 그거죠? 그거 맞죠?”

나는 소리 소리를 질러가며 딸애의 담임선생님에게 문제의 그,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뎨 것 같은 허연 자국을 들이밀었다. 나의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에 선생님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선생님이 내게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따지듯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놀이터 앞에서 뽕튀기 장사하는 아줌마, 그 아줌마 애들이 우리 애들이랑 같은 반이 맞잖아요. 우리 애 얼굴에 이런 게 생기다니! 선생님, 만약에 이게 진짜 그거면 인제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뽕튀기 아줌마도 예전엔 예뻐다는데, 그러면 뭐해요. 지금은 완전히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애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닌 게 진짜 확실하대요?”

이성을 잃고 이제는 울먹거리기까지 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막무가내로 흥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병원부터 먼저 가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점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나는 딸애의 볼에 난 그, 허연 자국 한 번 쳐다보고, 놀이터 앞에서 장사하는 뽕튀기 아줌마 얼굴 한번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고 진저리를 쳤다. 놀이터 앞에서 뽕튀기 장사하는 아줌마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까

지 전부 허영게 변해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병을 가리켜 “백노”라 부른다고 했다. 그렇게 허영게 변해가다가 온몸이 전부 하얗게 변해버리면 그러면 죽는 병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그, 백노에 걸린 아줌마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한번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뒹굴며 놀고 함께 베개를 베고 지는 것이다.

피부과 의사의 말로는 “백노”는 확실히 아니라고 했다. “백노”는 전염이 되는 병도 아니라고,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내 마음은 한동안 석연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면에 공개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까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나는 굳이 이 얘기를 썼다. 민주화가 어찌니,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찌니,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 안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말해온 “나”라는 인간의 내면이란 것이 어찌면 이렇게도 웅졸하고 이기적이며 게다가 비민주적이기까지 한 것인지.....

나는 이 글, 아니 이 반성문을 쓰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내 가족, 내 피부이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이성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그러나 비단 나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이명량

- 1973 서울 출생
- 1997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 외 2편 발표
- 1998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 2001 에세이집 <행복한 과일가게>
- 2002 연작소설집 <삼오식당>